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재고/소비

■ 고용 취업자/실업자/물가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생산 감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7월 대비 7.7%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율을 나타내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9.2%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됨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백화점 9.8%, 대형마트 3.4%)은 지난해 7월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8월 대비 미미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 대비 0.1%(5천명) 증가한 4,862천명으로,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8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4%로 지난해 8월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이후 5년간 8월 평균 실업률 4.5% 보다는 0.1%p 낮은 수준임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난 7월 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이는 장마와 폭염에 따른 채소류, 과일류 등의 식료품(2.4%) 가격 상승에 기인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지난해 7월 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7월 대비 406.8%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14.6%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6월(14.8%)과 비슷한 수준임 - 7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7월 대비 서울은 51.0% (전국:7.3%)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보다 0.1%p 증가한 0.4%로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와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의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8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특히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2.3%)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 미국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여 8월말 현재 4.76%를 기록함 ○ KOSPI 지난 8월말 대비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KOSPI 지수는 콜금리목표 인상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으나, 중순 이후 주요국 주가 상승, IT업황 개선 기대, 국제유가 하락 및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8월 말 현재 지난 7월 대비 4.2% 상승한 1,352.7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에 따른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8월말 현재 지난 7월 대비 소폭 상승한 961.5원을 기록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7월 보다 3.9%(56개) 많은 1,253개로 전국대비 비중은 지난 7월(38.0%)과 비슷한 수준(38.7%)임

| 생 · 산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큰 폭 둔화

- 2006년 7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지난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10.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
- 이는 반도체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장마·호우 등에 따른 건설 및 관련활동 위축 등에 기인한 것임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 2006년 7월중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 대비 7.7%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율을 보이며 하락세는 지난 4월부터 지속됨
- 이는 대기업 제조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컴퓨터 및 사무기기(액정모니터) 등의 큰 폭 감소에 기인한 것임

■ 서울 경공업부문 산업생산 증가폭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 대비 25.4% 감소하여 지난 2개월 연속 감소세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72.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4.6%), 기타기계 및 장비(-18.3%) 등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 대비 0.6% 증가하여 지난 6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5.9%), 섬유제품(3.8%) 등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14.5%), 인쇄출판(-2.8%)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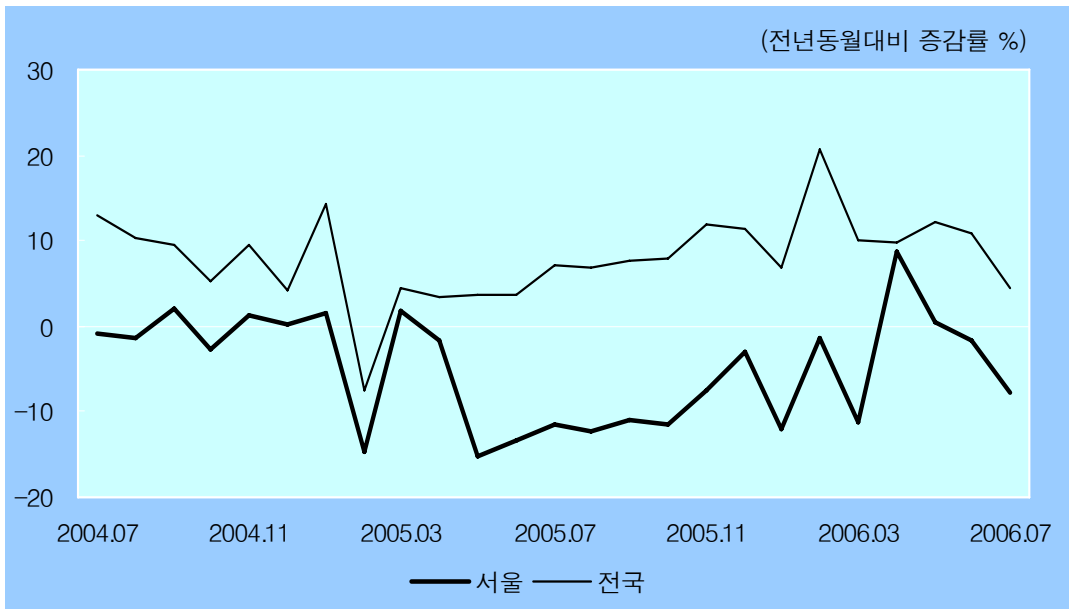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7.0 (0.7)	10.0 (0.9)	9.6 (-1.1)	12.1 (1.8)	10.9 (1.2)	4.4 (-3.9)
	서울 (제조업)	-11.6 (1.0)	-11.3 (18.6)	8.6 (13.6)	0.6 (-19.7)	-1.6 (-3.0)	-7.7 (-5.2)
	중공업	-21.9 (-1.0)	-41.5 (14.4)	21.1 (73.2)	-6.7 (-46.7)	-9.0 (3.8)	-25.4 (-18.9)
	경공업	-5.9 (2.0)	10.4 (20.3)	1.3 (-9.0)	3.7 (-0.1)	2.0 (-5.7)	0.6 (0.6)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지난 1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지속

- 2006년 7월중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7.1% 증가하여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함
-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의 증가세 확대가 지속된 반면, IT 부문의 재고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자동차 부문의 재고 증가세는 감소로 전환함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높은 증가세 지속

- 2006년 7월중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9.2%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됨
- 제1차금속, 가구 및 기타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음식료품, 섬유제품, 기타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한데 기인함

■ 서울 경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폭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 대비 8.9% 감소하며 감소세가 지속됨
- 세부업종별로 제1차금속(-72.5%), 컴퓨터 및 사무기기(-23.6%) 등은 감소한 반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0.2%), 기타전기기계(17.0%) 등은 증가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7월 대비 15.5%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가구 및 기타제품(-42.3%)이 감소한 반면, 음식료품(44.0%), 섬유제품(17.7%), 의복 및 모피(12.9%) 등이 증가함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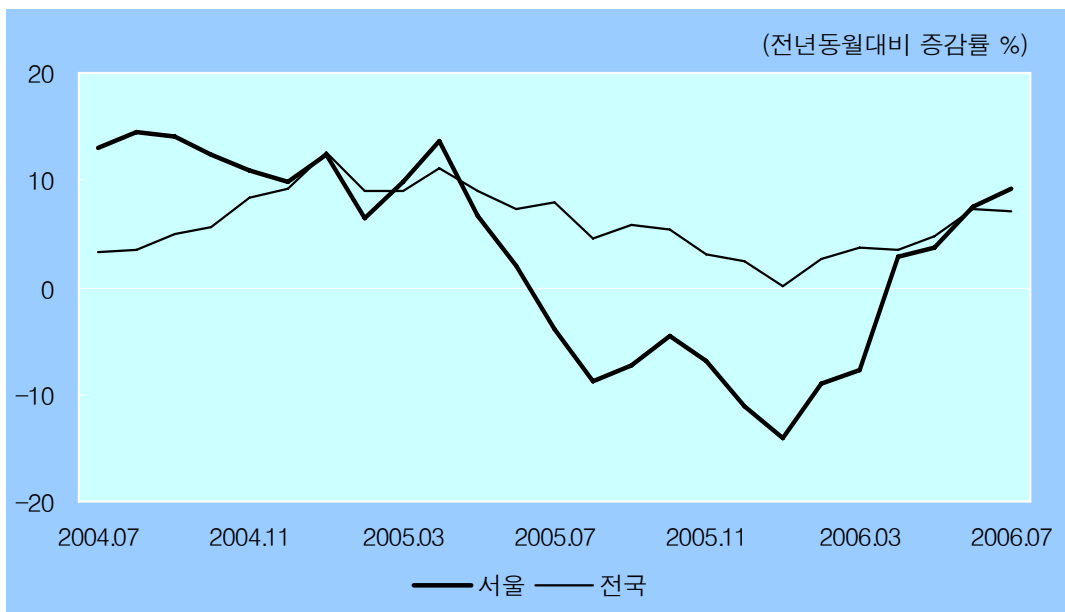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7.9 (0.9)	3.7 (2.3)	3.5 (0.7)	4.9 (1.9)	7.2 (0.4)	7.1 (0.9)
	서울 (제조업)	-3.9 (-0.7)	-7.7 (3.1)	2.9 (2.7)	3.6 (0.7)	7.6 (2.5)	9.2 (0.8)
	중공업	-28.7 (1.8)	-38.1 (-2.3)	-16.3 (1.5)	-4.5 (-0.2)	-6.4 (1.1)	-8.9 (-1.0)
	경공업	9.4 (-1.5)	7.9 (4.7)	10.1 (3.0)	6.2 (0.9)	12.3 (3.0)	15.5 (1.3)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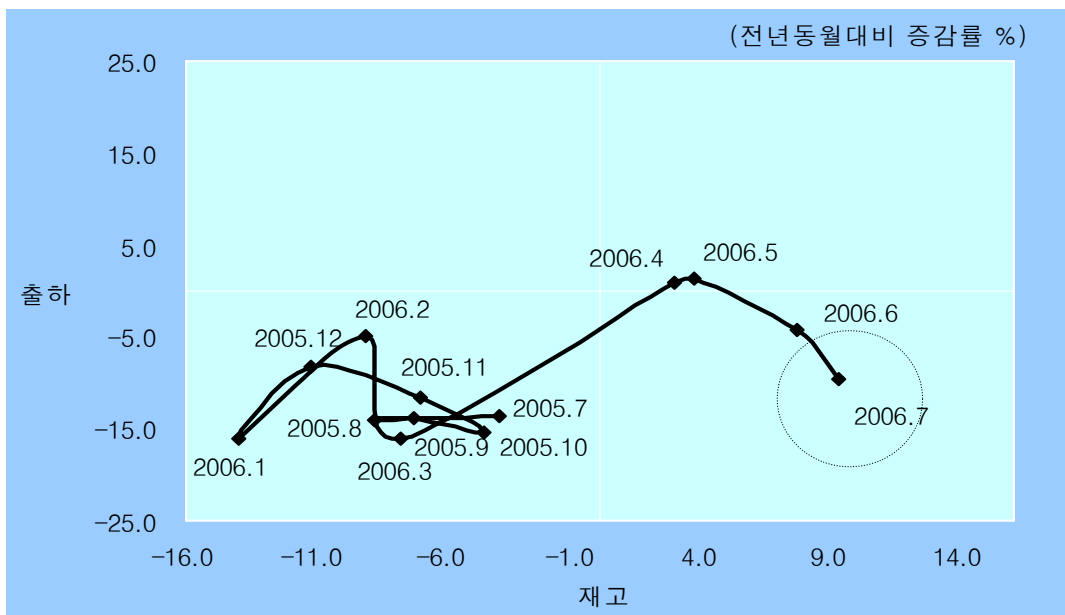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 증가, 출하 감소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 증가세 지속, 출하 감소세

- 2006년 7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7월 대비 9.5% 감소하여 지난 6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재고는 지난해 7월 대비 9.2%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됨
- <Box>의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를 참고할 때, 2006년 7월 현재 서울의 출하·재고 상황은 재고누증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증가세 지속

- 2006년 7월중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0.8%를 기록하여 지난 6월에 비해 상당폭 상승하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도 182.8%로 지난 6월 대비 큰 폭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166.2%, 경공업부문은 185.8%로 100%를 크게 상회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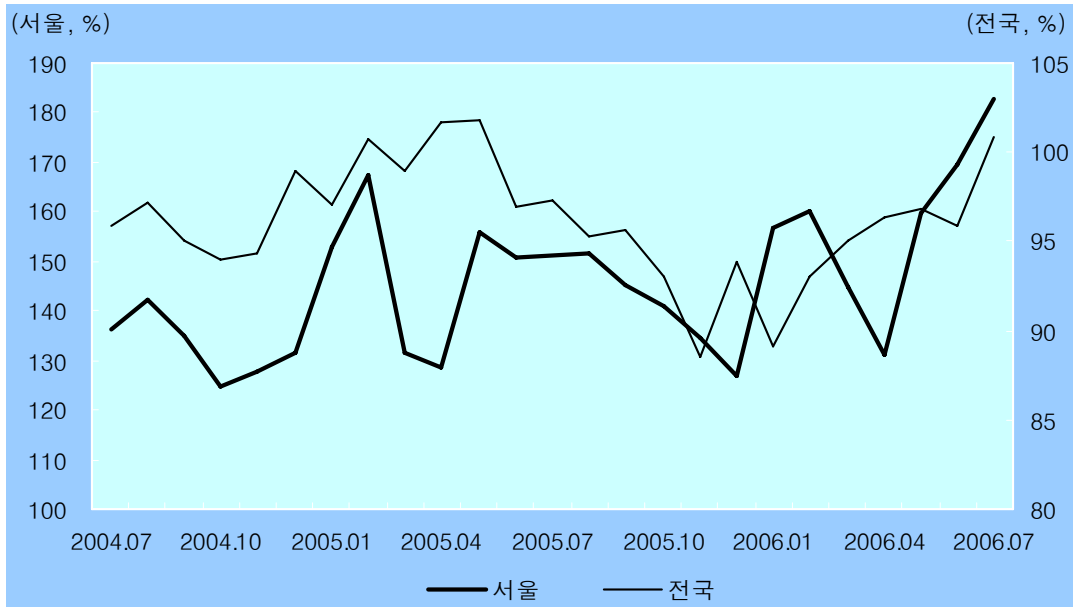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재고율	전국	97.3	95.1	96.3	96.8	96.3	100.8
	서울 (제조업)	151.4	144.7	131.2	159.6	169.6	182.8
	중공업	131.3	122.9	75.1	127.7	132.6	166.2
	경공업	159.0	151.6	167.9	170.6	182.8	185.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5월 이후 증가폭 축소 지속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 2006년 7월중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6.5% 증가하였으나,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됨(8.8% → 6.5%)
- 백화점부문은 가구, 주방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7월 대비 2.0% 증가하고, 대형마트(할인점)부문은 의복, 화장품 등에서 판매액이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운동오락용품,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하여 7.3%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 2006년 7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지난 5월(11.5%)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됨
- 백화점부문의 경우 핸드폰 보조금 확대시행으로 통신기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여름 정기세일 및 가구, 주방용품의 특별기획전으로 판매액이 지난해 7월 대비 9.8% 증가함
- 대형마트(할인점)부문의 경우 여름 방학 및 바캉스 기획전으로 인한 컴퓨터, 가방의 판매증가와 신규 대형마트 증가로 인해 판매액이 지난해 7월 대비 3.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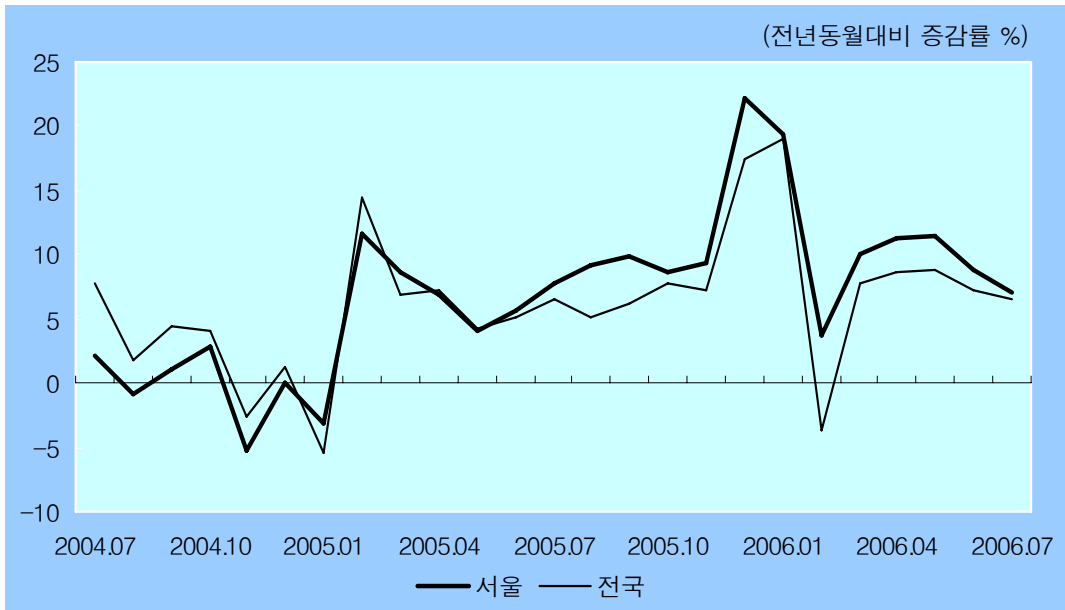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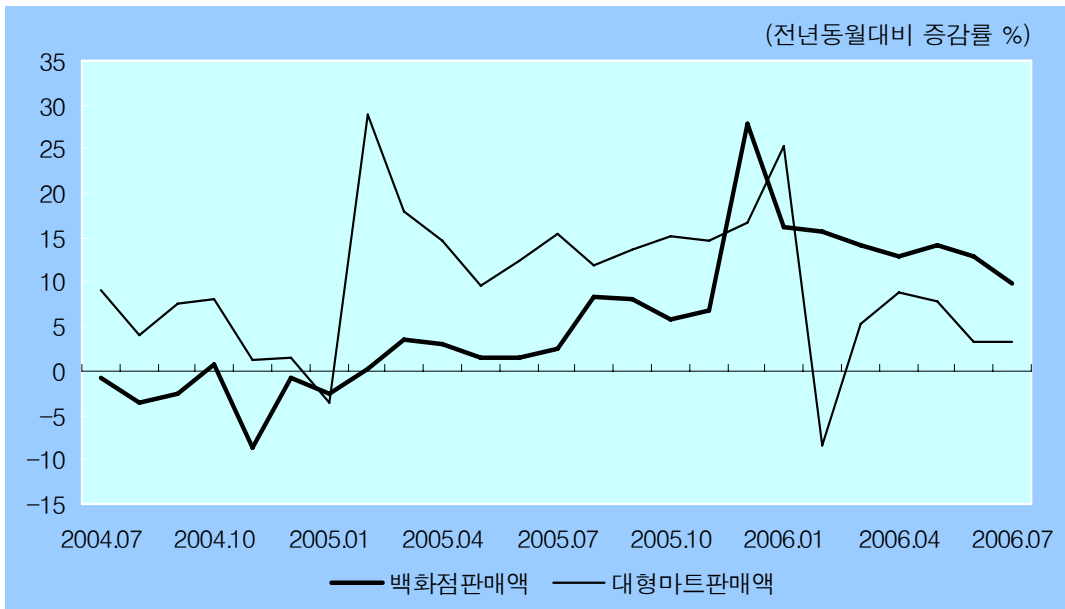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7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판매액	전국	3,409 (6.5)	3,543 (7.7)	3,669 (8.7)	3,711 (8.8)	3,353 (7.3)	3,631 (6.5)
	서울	1,119 (7.7)	1,214 (10.0)	1,272 (11.3)	1,254 (11.5)	1,125 (8.8)	1,198 (7.1)
	백화점	595 (2.6)	703 (14.2)	761 (12.9)	723 (14.1)	620 (13.0)	653 (9.8)
	대형마트 (할인점)	490 (15.5)	470 (5.2)	479 (8.9)	497 (7.8)	474 (3.3)	507 (3.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Box〉 서울, 2006년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 현재생활형편 및 생활형편전망 CSI

- 2006년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CSI(80 → 75)는 전분기보다 5p 하락하였으며 3분기 연속 생활형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서울의 생활형편전망CSI(89 → 81)는 전분기보다 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 CSI

- 향후 1년 동안의 2006년 3/4분기 서울의 가계수입전망CSI(93 → 90)는 전분기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6개월 동안의 서울의 소비지출전망CSI(105 → 103)는 전분기보다 2p 하락하여 앞으로 지출을 늘리려는 의도를 가진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6개월 전과 비교한 2006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CSI(63 → 56)는 전분기보다 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3분기 연속 하락함
- 서울의 경기전망CSI(76 → 66)도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표〉 소비자동향조사 추이

구분	2005			2006		
	2/4	3/4	4/4	1/4	2/4	3/4
현재생활형편CSI	77	76	80	83	80	75
생활형편전망CSI	89	86	95	96	89	81
가계수입전망CSI	94	91	100	100	93	90
소비지출전망CSI	106	102	108	111	105	103
현재경기판단CSI	70	64	81	85	63	56
향후경기전망CSI	86	78	100	100	76	66

주: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의 기준치는 100으로 100을 상회(하회)하면 조사항목에 대해 좋아질(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나빠질(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 취 · 업 · 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국대비 1.3%p 하회

■ **전국의 취업자 수 지난해 8월 대비 1.4% 증가**

- 2006년 8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3,164천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4%(318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여자는 1.5%(9,660천명), 남자는 1.3%(13,505천명)가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 대비 3.7%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4.8% 증가하여 고령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8월 대비 0.1% 증가**

- 2006년 8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862천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0.1%(5천명) 증가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1.3%p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취업률이 전국에 비해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7%(2,803천명), 여자는 42.3%(2,059천명)로 지난해 8월 대비 남자는 0.03%(1천명)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3%(6천명) 증가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1.4%로서 지난해 8월에 비해 6.9%(-35천명)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체 취업자의 14.2%로 4.9%(3천명) 증가함
-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지난 7월 대비 1.1%p 감소하였고, 전국 대비 3.2%p 감소하여 전국과의 차(5월: 0.1%p, 6월: 0.8%p 7월:1.7%p)가 점차 확대됨
-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4월에 이어 꾸준히 증가폭이 확대되어 지난 7월에 비해 0.3%p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비해 0.8%p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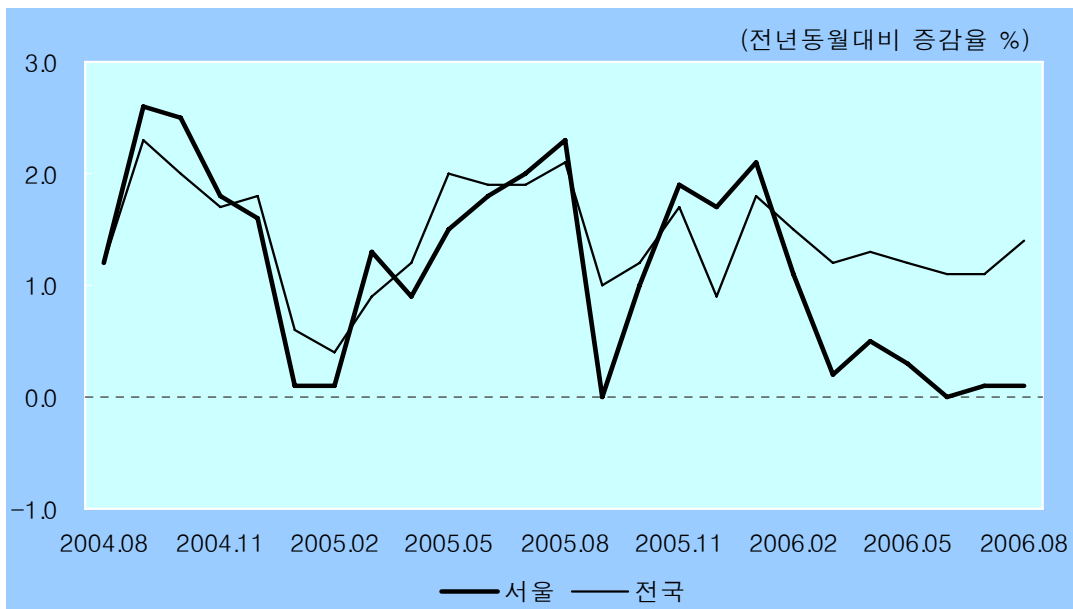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전국	2.1 (-1.5)	1.2 (1.9)	1.3 (1.7)	1.2 (1.0)	1.1 (0.1)	1.1 (-0.2)	1.4 (-1.2)	
	서울	2.3 (-1.0)	0.2 (0.4)	0.5 (0.7)	0.3 (0.2)	0.0 (0.2)	0.1 (-0.5)	0.1 (-1.1)	
	성별	남자	1.8 (-0.5)	-0.2 (1.4)	-0.3 (0.0)	0.1 (0.5)	-0.4 (-0.5)	0.7 (0.4)	0.0 (-1.3)
		여자	3.0 (-1.7)	0.7 (-0.9)	1.7 (1.7)	0.6 (-0.2)	0.6 (1.1)	-0.7 (-1.7)	0.3 (-0.7)
청년층 취업자	전국	-1.6 (-3.8)	-4.8 (-1.3)	-4.4 (0.3)	-4.6 (0.7)	-4.9 (-0.8)	-4.1 (3.3)	-3.7 (-3.4)	
	서울	-0.5 (-2.2)	-5.7 (-0.9)	-6.4 (-1.2)	-4.5 (0.4)	-5.7 (-1.0)	-5.8 (1.1)	-6.9 (-3.3)	
고령층 취업자	전국	5.5 (-1.4)	4.2 (8.1)	3.1 (4.9)	4.0 (3.3)	3.9 (1.1)	3.8 (-2.3)	4.8 (-0.5)	
	서울	4.2 (0.2)	3.4 (2.6)	1.6 (1.6)	2.4 (0.6)	3.2 (1.4)	4.6 (-2.5)	4.9 (0.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8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6.3%, 도소매·음식숙박업 29.1%, 제조업 15.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9%, 건설업 8.4%의 순서를 나타냄
- 전체 취업자 중 각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8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2%p,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0.2%p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0.6%p, 건설업은 0.5%p,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1%p 하락함
- 지난해 8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9%)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5.4%), 제조업(-3.5%), 도소매·음식숙박업(-1.2%)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5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8월중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9.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9.0%, 서비스·판매 종사자 26.0%, 사무종사자 15.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의 분포를 나타냄
- 지난 7월에 이어 지난해 8월 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1.7%), 사무종사자(1.0%)는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9%)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0.2%)는 감소함

■ 임금근로자 수 증가

- 2006년 8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2.7% (3,536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7.3%(1,326천명)로 종사자 지위별 분포는 지난해 8월과 동일함
- 지난 7월에 이어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8월 대비 1.3%(45천명)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3.0%(-41천명)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5%(19천명), 상용근로자 3.3%(55천명)가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2.3%(29천명)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의 84.7%를 차지하는 자영업주는 3.1%(-36천명)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5%(-5천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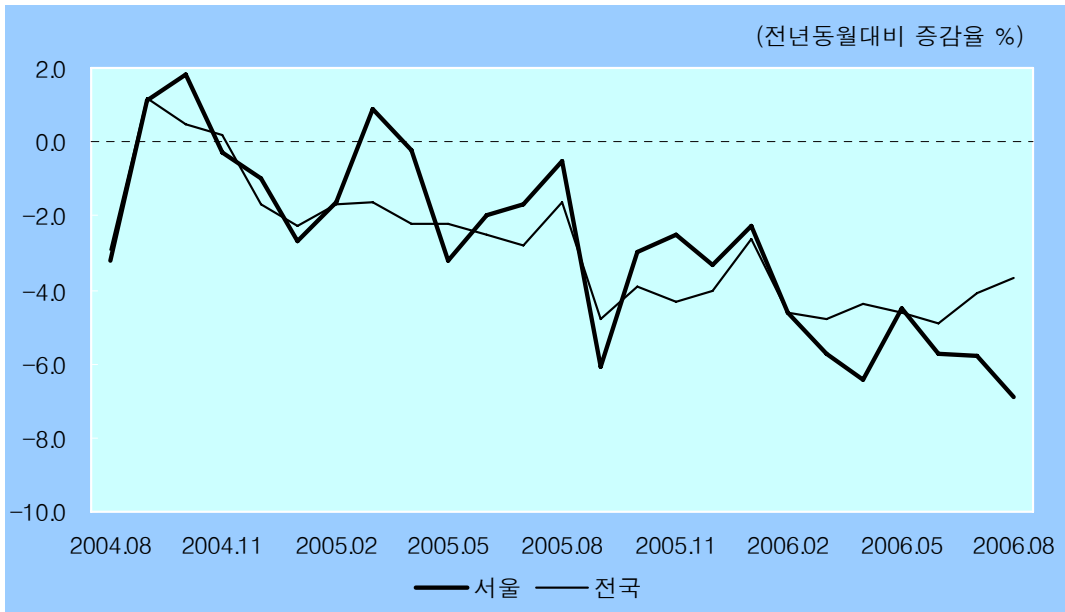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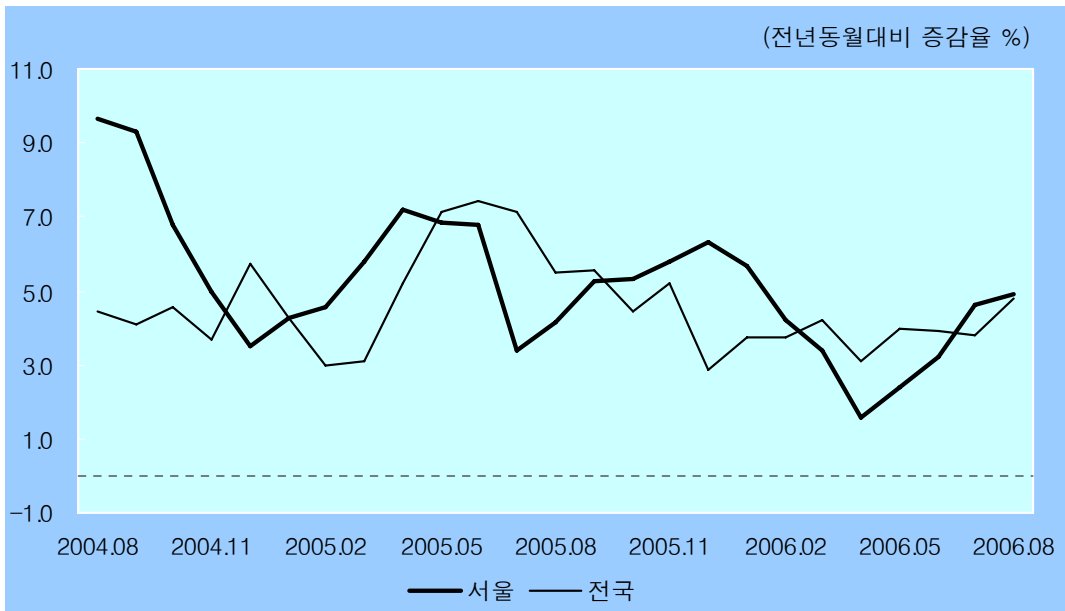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산업 별 취 업 자	광공업	-3.8 (-4.1)	-4.6 (2.0)	-7.0 (-3.1)	-5.4 (0.4)	-7.9 (-2.5)	-4.9 (2.4)	-3.5 (-2.6)
	· 제조업	-3.8 (-4.1)	-4.6 (2.0)	-7.0 (-3.1)	-5.4 (0.4)	-7.9 (-2.5)	-4.9 (2.4)	-3.5 (-2.6)
	SOC 및 기타서비스업	3.5 (-0.4)	1.0 (0.2)	2.0 (1.4)	1.4 (0.2)	1.4 (0.6)	1.1 (-0.9)	0.7 (-0.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0 (-1.9)	3.5 (0.4)	4.8 (2.1)	2.3 (-0.9)	3.7 (1.4)	1.6 (-1.6)	3.5 (0.0)
	· 도소매·음식숙박	3.5 (-0.9)	-1.7 (-0.8)	-0.4 (0.0)	0.4 (0.8)	1.1 (1.7)	1.3 (-0.4)	-1.2 (-1.6)
	· 전기·운수·통신·금융	-0.7 (-0.4)	-1.8 (-2.1)	-1.6 (0.8)	1.4 (2.3)	-0.8 (-2.1)	1.5 (1.6)	1.9 (0.0)
	· 건설업	6.9 (1.0)	4.1 (5.7)	2.9 (3.4)	0.8 (-0.1)	-3.7 (-2.8)	-2.2 (-2.6)	-5.4 (-2.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3 (-0.9)	1.5 (2.1)	4.4 (1.8)	3.5 (-0.5)	2.3 (-0.2)	1.8 (-0.5)	1.7 (-1.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5 (-2.2)	-0.1 (2.2)	2.0 (2.5)	2.1 (0.9)	-3.4 (-4.0)	-0.7 (2.1)	-1.9 (-3.4)
	서비스·판매종사자	3.8 (0.1)	-2.0 (-1.2)	-3.7 (-1.4)	-5.2 (-1.3)	2.4 (8.2)	-1.4 (-4.5)	-0.2 (1.3)
직업 별 취 업 자	사무종사자	-2.0 (-0.9)	1.7 (-2.9)	-2.5 (-1.3)	0.2 (2.8)	-2.1 (-3.7)	1.0 (2.2)	1.0 (-0.9)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7.7 (21.7)	33.3 (-18.2)	37.8 (41.7)	13.2 (-15.7)	81.1 (55.8)	-6.5 (-35.8)	7.1 (39.5)
	종사 상 지 위 별	임금근로자	3.6 (-2.2)	2.4 (1.0)	1.6 (0.8)	1.8 (0.9)	-0.1 (-1.4)	1.6 (1.8)
	비임금근로자	-0.9 (2.2)	-5.2 (-1.0)	-2.1 (0.5)	-3.7 (-1.6)	0.2 (4.5)	-3.9 (-6.3)	-3.0 (3.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률 |

서울의 실업률 4%대 유지

■ 전국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8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개월 연속 동일한 3.4%로 지난해 8월 대비 0.2%p 하락하였음
- 8월 전국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8월의 평균 실업률 3.6% 보다 0.2%p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지난해 8월 대비 8.0%가 감소하였고, 여자는 3.1%가 증가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8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4%(실업자는 225천명)로 지난해 8월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3.4%) 보다 1.0%p 상회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8월 평균 실업률 4.5%보다는 0.1%p 낮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 중 남자는 60.5%, 여자는 39.5%의 비중을 차지함
- 지난해 8월 대비 남자의 실업률은 4.6%로 0.2%p(실업자 증감률 -5.3%)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실업률은 4.2%(실업자 증감률 1.4%)로 보합세를 유지함

〈표〉 2006년 8월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3.6	3.9	3.5	3.2	3.4	3.4	3.4	
서울	4.5	5.2	4.6	4.1	4.1	4.2	4.4	
성 별	남자	4.8	5.4	5.0	4.3	4.3	4.3	4.6
	여자	4.2	4.8	4.0	3.8	3.8	4.1	4.2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서울 소비자 물가 지난 7월 대비 0.7% 상승

■ 전국 소비자 물가 0.9% 상승

- 2006년 8월중 전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대비 0.9%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0.7%p 상승함
- 장마와 폭염 등 날씨의 영향으로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축산물(6.5%)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 소비자 물가 0.7% 상승

- 2006년 8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대비 0.7% 상승하여 지난 5개월 평균 물가상승률(0.1%)을 크게 상회했으나, 2000년 이후 지난 6년간 8월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수준(0.7%)임
- 전국과 마찬가지로 8월 동안 계속된 장마와 폭염의 영향에 따른 출회부진으로 채소류, 과일류 등의 식료품 가격(2.4%)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이 가장 큰 폭(2.4%)으로 올랐으며, 이어 가구집기·가사용품(0.8%) 여행용가방, 금반지 등 기타 잡비(0.4%)의 가격이 상승함

■ 서비스부문에 비해 상품 부문이 더 큰 폭으로 상승

- 2006년 8월중 상품부문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축수산물이 큰 폭(5.8%)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 7월 대비 1.7% 상승함
- 2006년 8월중 서비스 부문은 국내 항공료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업은 지난 7월 대비 0.2%, 전·월세를 포함한 집세는 0.1% 상승하였으며 공공서비스는 지난 7월과 동일함

■ 신선식품 큰 폭으로 상승

- 2006년 8월중 생활물가는 지난 7월 대비 1.3%(전국:1.3%) 상승함
- 2006년 8월중 신선식품은 채소류(21.8%), 과일류(13.1%)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12.5%(전국: 14.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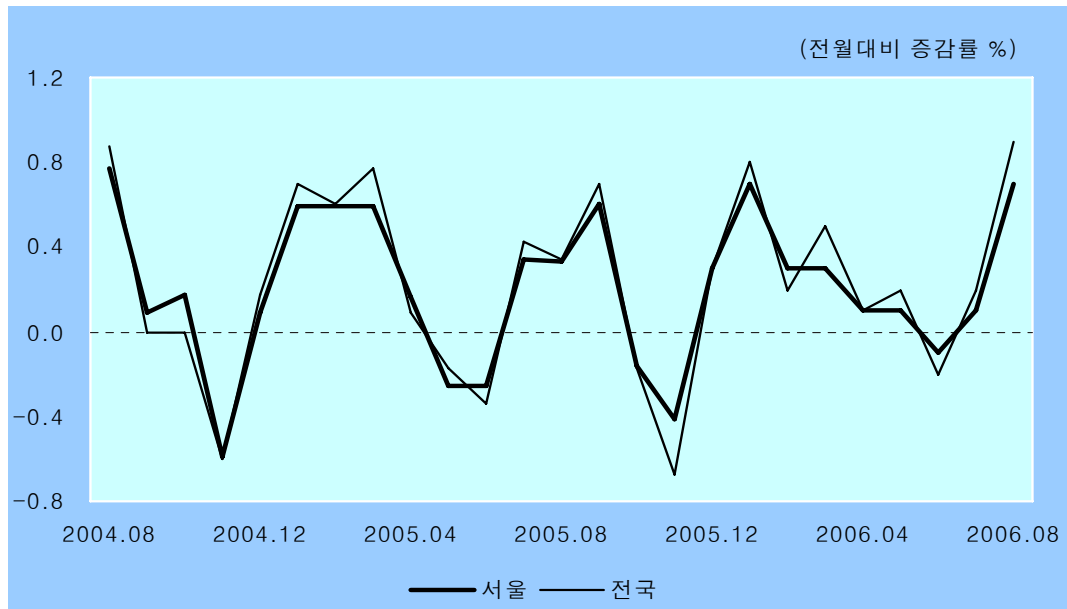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전국	0.3 (2.0)	0.5 (2.0)	0.1 (2.0)	0.2 (2.4)	-0.2 (2.6)	0.2 (2.3)	0.9 (2.9)	
	서울	0.3 (1.9)	0.3 (2.0)	0.1 (1.9)	0.1 (2.3)	-0.1 (2.4)	0.1 (2.2)	0.7 (2.6)	
	상품 성질별	상품	0.6 (2.1)	-0.5 (1.5)	0.2 (1.2)	0.1 (1.8)	-0.2 (2.4)	-0.2 (1.6)	1.7 (2.7)
		서비스	0.1 (1.6)	0.8 (2.3)	0.1 (2.5)	0.0 (2.4)	0.1 (2.4)	0.3 (2.6)	0.1 (2.6)
	생활물가	0.5 (2.9)	0.6 (3.1)	0.1 (2.9)	-0.2 (3.2)	-0.2 (3.5)	0.0 (2.8)	1.3 (3.6)	
	신선식품	3.8 (-3.4)	-1.5 (-0.3)	-0.5 (-2.9)	-4.3 (-3.1)	-5.1 (-2.3)	-1.4 (-3.9)	12.5 (4.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7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7월 대비 증가

- 2006년 7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21,080천m²로 지난해 6월 대비 161.9% 증가함
- 전체 허가면적 중 주거용은 33.4%, 상업용은 31.0%, 공업용은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129.1%, 222.6%, 150.5% 증가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상업용 중심으로 지난해 7월 대비 406.8% 증가

- 2006년 7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078천m²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에 이어 서울의 건축허가면적도 지난해 7월 대비 406.8% 증가함
-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전체건축허가면적의 54.0%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건축면적 (253천m²→1,662천m²)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7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7월에 비해 246.5% 증가하였으며, 이 중 특히 아파트가 큰 폭(514.1%)으로 증가함
- 7월중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7월에 비해 469.0% 증가하였으며, 상업용 (556.9%), 문교 및 사회(532.3%), 기타(408.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m²,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8,050	10,787	9,247	9,313	14,132	21,080	161.9 (49.2)	
서울	607	774	1,427	858	2,094	3,078	406.8 (47.0)	
주거용	소계	172	146	303	249	493	596	246.5 (20.9)
	단독	17	13	13	14	17	23	35.3 (35.3)
	연립	82	58	38	84	48	128	56.1 (166.7)
	아파트	71	74	252	151	428	436	514.1 (1.9)
비주거용	소계	436	628	1,124	609	1,600	2,481	469.0 (55.1)
	상업	253	347	878	304	1,164	1,662	556.9 (42.8)
	공업	60	5	8	151	17	71	18.3 (317.6)
	문교/사회	99	203	122	149	243	626	532.3 (157.6)
	기타	24	74	116	5	176	122	408.3 (-30.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강남구, 중랑구, 서초구 순으로 건축허가면적 높음

- 2006년 7월중 서울 건축허가면적은 강남구(663천㎡), 중랑구(659천㎡), 서초구(236천㎡)에서 200천㎡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의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음
- 건축 허가면적이 높은 구의 주거용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32.9%, 서초구는 14.0%, 중랑구는 1.2%로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반면 강동구(29천㎡), 광진구(34천㎡), 서대문구(37천㎡), 강북구(39㎡), 종로구(29㎡)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이 낮게 나타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지난해 7월 대비 51.0% 증가

- 2006년 7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1,139억 원으로 전국 건설수주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대비 51.0%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 기타(체육관), 토지 조성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798.1% 증가하였으며, 신규주택, 재개발, 도로부문의 발주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15.7%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7.2%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50.7% 증가하였으며, 2.8%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168.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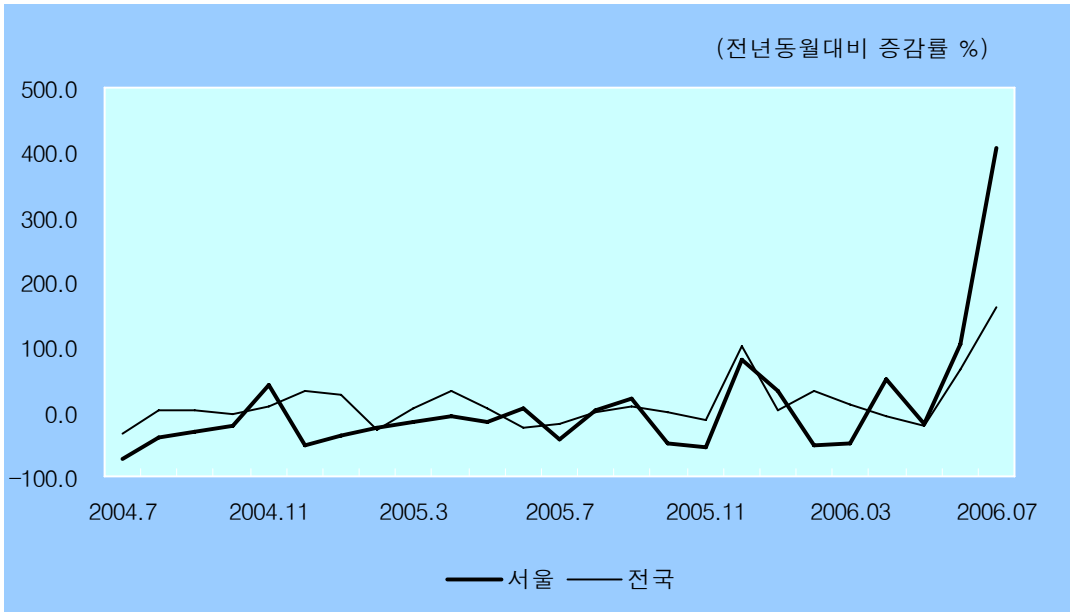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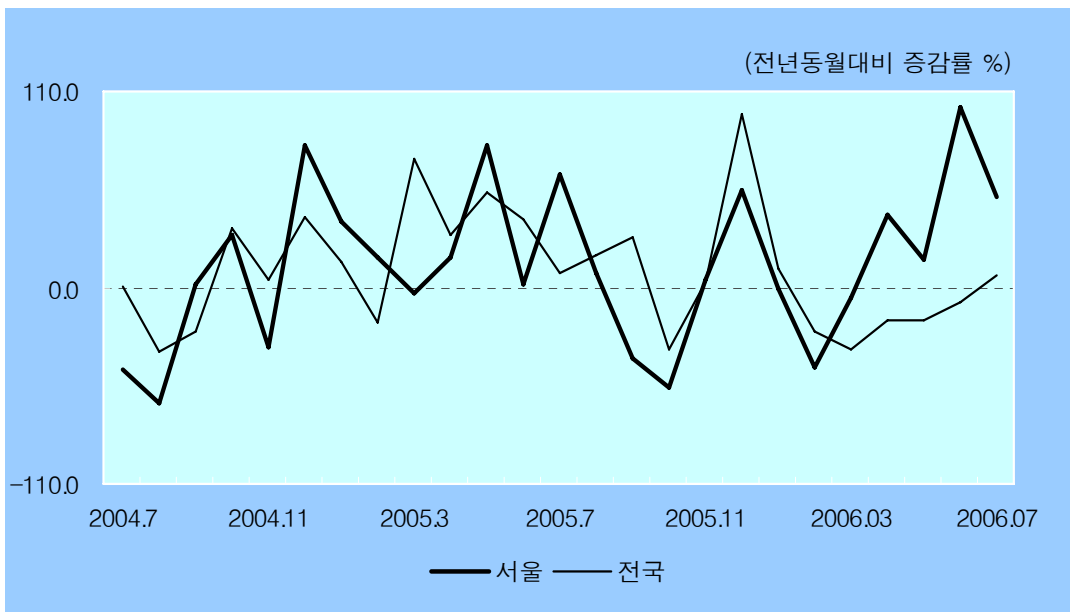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6,794.8	6,065.7	5,291.3	7,135.1	9,262.6	7,291.3	7.3 (-21.3)	
서울	737.5	1,146.2	1,728.9	1,330.3	2,590.1	1,113.9	51.0 (-57.0)	
발주 자별	공공	33.9	192.8	447.2	362.1	400.9	304.4	798.1 (-24.1)
	민간	698.6	945.7	1,280.4	968.1	2,188.3	808.5	15.7 (-63.1)
공종 별	건축	718.2	976.1	1,721.9	1,324.2	2,574.8	1,082.4	50.7 (-58.0)
	토목	11.7	168.8	5.3	5.9	12.9	31.2	168.1 (141.9)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양상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7월 대비 0.2% 상승
 - 2006년 8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2% 상승하여 보합세를 유지함
 - 가을 이사철 수요와 가격의 추가하락을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의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7월 대비 0.4% 상승
 - 2006년 8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4% 상승하여 지난 7월 최저 상승률보다 0.1%p 상승함
 - 8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보다 0.2%p 높은 수준으로서 가을 이사철 수요의 증가와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의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5% 강남은 0.2%, 상승하여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을 0.3%p 상회하였으며, 두 지역 간 상승폭 격차는 지난 7월(0.1%p)에 비해 증가함
 - 그러나 2005년 말에 비해서는 서울은 8.3%(전국: 4.8%) 증가하였으며, 강북은 5.0%, 강남은 10.3% 증가함에 따라 강남이 강북의 두 배 이상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지난 7월에 이어 아파트의 가격상승폭(0.3%)은 둔화된 반면 뉴타운, 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단독주택(0.6%)과 연립주택(0.5%)의 상승폭이 확대됨
 - 이 중 아파트는 지난 7개월(1월~7월) 월평균 아파트 상승률(1.3%)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4	0.6	0.9	1.0	0.5	0.2	0.2 (4.3)	
서울	0.4	1.2	1.5	1.5	0.7	0.3	0.4 (7.2)	
아파트	0.4	1.8	2.3	2.0	0.6	0.3	0.3 (9.6)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6	0.5	0.7	0.7	0.6	0.4	0.5 (4.0)
	강남	0.2	1.8	2.4	2.2	0.8	0.3	0.2 (10.3)

주: , () 2005 12 !대비 증감률임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 2006년 8월중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을 구별로 보면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1.5%)와 개발계획이 있는 용산구(1.4%), 마포구(1.0%)에서 서울지역 매매가격 상승률(0.4%)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이어 광진구(0.6%), 성동구(0.6%), 동대문구(0.5%)에서 강북 주택 매매가격의 평균 상승률(0.4%)을 상회함
- 반면 지난 7월에 이어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는 0.1%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 2006년 8월중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을 구별로 보면 3개월 연속 강서구(1.0%)는 서울 지역 매매가격 상승률(0.4%)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이어 양천구(0.7%), 관악구(0.6%), 구로구(0.3%), 동작구(0.3%) 등 서울의 서남 지역에서 강남 평균주택매매가격(0.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금천구, 서초구는 지난 7월에 비해 소폭(0.1%) 상승하였고, 강남구, 강동구는 3개월 연속 동일한 주택매매가격을 나타냈으며, 송파구(-0.4%)는 지난 7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됨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006년 8월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3% 상승(강북: 0.3%, 강남: 0.2%) 하여 지난 7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상승폭이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난 6,7월에 이어 강서구(1.1%)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광진구(1.0%), 성동구(0.9%), 관악구(0.8%), 마포구(0.7%), 구로구(0.6%)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의 2배 이상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임
- 반면 송파구(-0.5%), 강남구(-0.1%)은 지난 7월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함
- 8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5% 상승한 1,488만원으로 지난 7월 증가폭이 지난 7월에 비해 0.1%p 상승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로서, 이중 용산구(0.6%)를 제외하고 모두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0.5%)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반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금천구로서, 이 중 금천구(0.6%)를 제외하고 모두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0.5%)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7월 대비 0.4%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7월 대비 0.2% 상승

- 2006년 8월중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2% 상승하여 지난 7월보다 0.1%p 상승함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지난 7월 대비 0.4% 상승

- 2006년 8월중 서울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4% 상승하여 지난 7월보다 0.2%p, 전국보다 0.2%p 상승함
- 강북은 0.6%, 강남은 0.2% 상승함에 따라 강북이 강남의 3배 이상 상승함
- 강북 재개발과 관련한 기대감과 뉴타운 지역의 가격 상승이 강북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4%, 연립주택 0.4%, 단독주택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연립주택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상승지역은 은평구

- 은평구(2.3%), 중랑구(0.8%), 노원구(0.7%), 마포구(0.7%), 중구(0.7%), 금천구(0.6%) 광진구(0.5%)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하는 지역임
-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북 지역이며 이러한 강북지역의 전세가격상승은 강북지역 개발계획과 뉴타운 개발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강북구(-0.2%)는 전세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양천구(0.0%), 구로구(0.1%), 동작구(0.1%), 강동구(0.2%), 강서구(0.2%), 서초구(0.2%), 송파구(0.2%), 강남구(0.3%) 등 대부분의 강남 지역에서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0.4%)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2	0.7	0.6	0.4	0.1	0.1	0.2 (2.9)
서울	0.3	1.2	0.8	0.5	0.2	0.2	0.4 (4.6)
아파트	0.7	1.5	1.1	0.6	0.2	0.2	0.4 (6.0)
지역별	강북	0.2	1.0	0.6	0.4	0.2	0.2 (4.0)
주택전세	강남	0.3	1.4	1.0	0.6	0.2	0.2 (5.2)

주: , () 2005 12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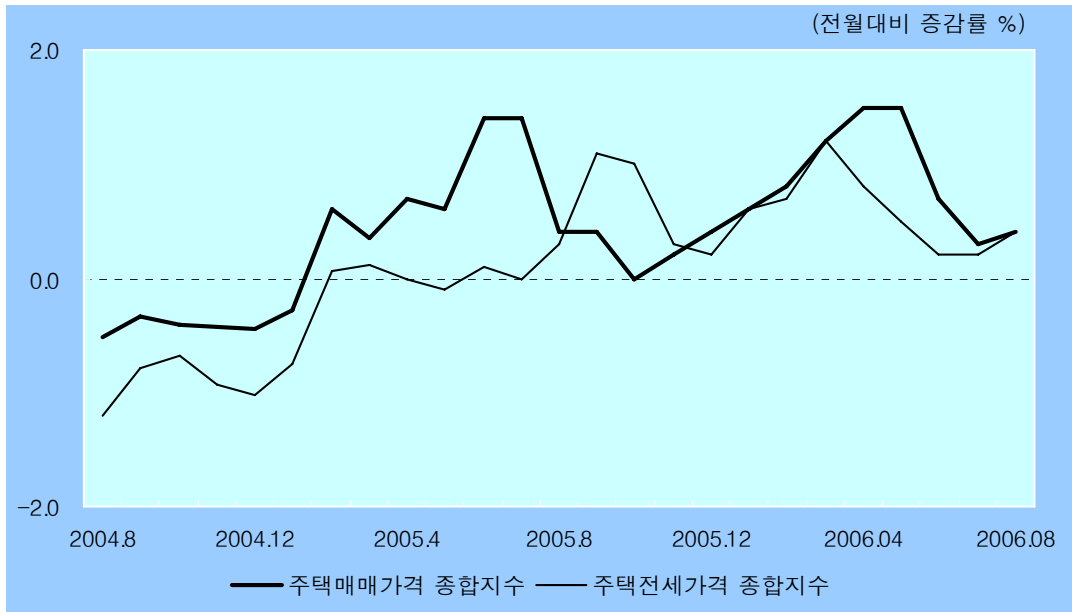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아파트 전세가격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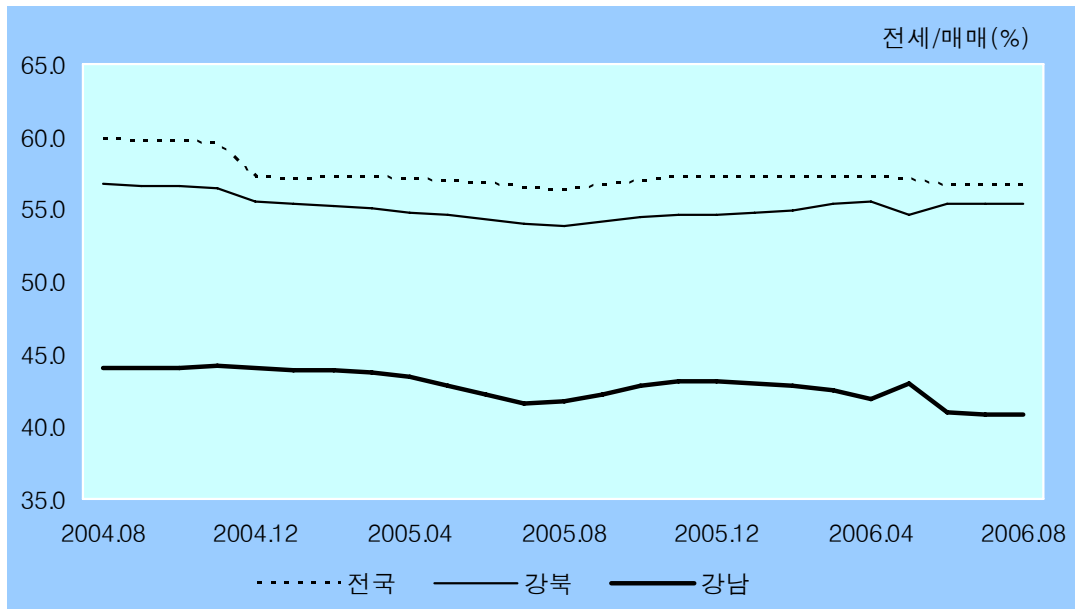
- 2006년 8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7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0.6%, 강남은 0.2%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4%p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구별로는 중랑구(1.4%), 성북구(1.0%)가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은평구(0.9%), 금천구(0.8%), 노원구(0.8%), 마포구(0.7%)가 강북 평균아파트전세가격 상승률(0.6%)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양천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관악구, 용산구는 0.1%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국에서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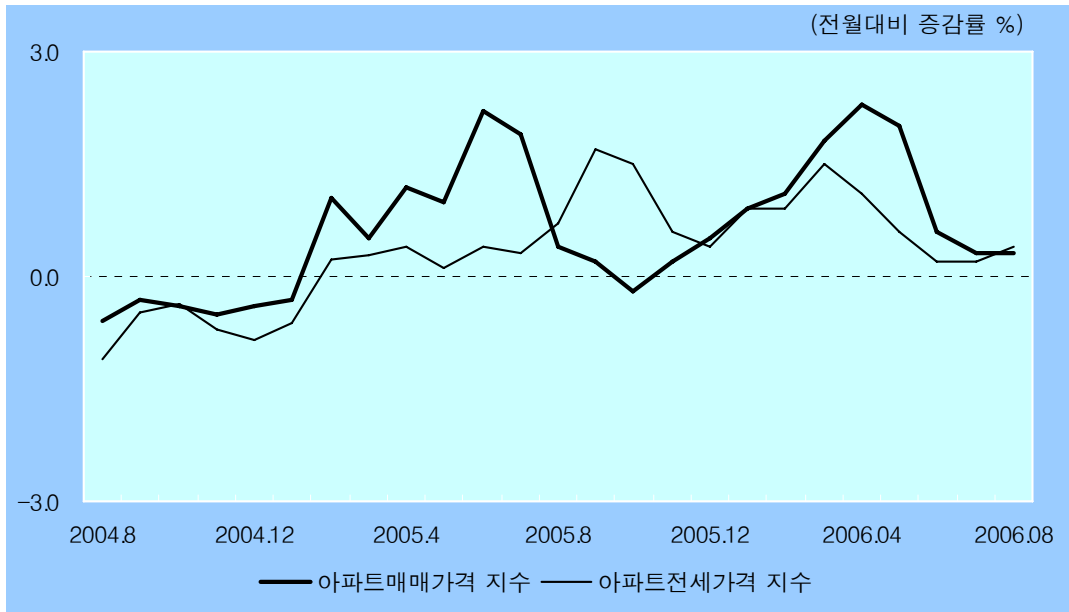
- 2006년 8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5%로 전국 평균 56.6%를 9.1%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줌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55.4%, 강남은 40.8%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7월 대비 강북은 0.1%p 소폭 상승하였으며 강남은 동일함
- 이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사용가치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장 · 단기 금리차 콜금리 상승, 국고채 하락으로 축소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8월 10일: +0.25%p)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미국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여 8월말 현재 4.76%를 기록함
-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국고채 수익률의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8월말 현재 5.09%를 기록함
- 회사채는 장기자금 수요 저조, 은행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4개월 연속 순상환이 지속됨 (2006년 7월: -0.6조 원 → 8월: -0.5조 원)

■ CD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2006년 8월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콜금리목표 인상 직후 상당폭 상승(4.71%)한 후 소폭 반락하여 4.68%로 마감함
- 2006년 8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금융통화위원회(8월 10일)의 금리인상폭만큼 상승하여 4.49%로 마감함

■ 장·단기 금리차 큰 폭으로 축소

- 장·단기 금리차는 콜금리가 상승한 반면, 국고채가 지난 7월에 이어 하락하면서 8월말 현재 0.27%p까지 크게 축소됨

■ KOSPI 지수 지난 7월 대비 상승세

- 2006년 8월중 KOSPI 지수는 콜금리목표 인상, 외국인 선물 순매도 등으로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중순 이후 주요국 주가 상승, IT업황 개선 기대, 국제유가 하락 및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8월말 현재 지난 7월에 비해 4.2% 상승한 1,352.7을 기록함
- 2006년 8월중 KOSDAQ 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해외증시의 강세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일부기업 실적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대비 소폭 상승한 572.8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 지난 7월 대비 소폭 상승

- 2006년 8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에 따른 하락압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지속 등에 기인하여 8월 말 현재 소폭 상승한 961.5원을 기록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전월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5일		
금리	국고채(3년)	4.81	4.72	4.92	4.83	4.76	4.63	-0.07
	회사채(3년, AA-)	5.08	5.00	5.20	5.15	5.09	4.97	-0.06
	CD(91일물)	4.36	4.36	4.59	4.64	4.68	4.61	0.04
	콜금리(1일)	3.97	3.96	4.21	4.22	4.49	4.48	0.27
	장·단기 금리차 ¹⁾	0.84	0.76	0.71	0.61	0.27	0.15	-
주 가	KOSPI ²⁾	1,419.7	1,317.7	1,295.2	1,297.8	1,352.7	1,355.2	4.23
	KOSDAQ ²⁾	685.4	630.5	590.7	557.7	572.8	597.3	2.71
환률 (W/US\$) ²⁾	943.4	945.6	948.9	955.2	961.5	944.0	0.66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8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지난 7월 대비 증가폭 확대

- 2006년 8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2.7조 원 늘어나 지난 7월에 비해 증가폭(0.83%)이 확대됨(7월중: +2.5조 원 → +2.7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7월중: +2.3조 원 → +1.3조 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휴가철 카드사용 대금 결제 및 학자금대출 취급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 증가함(7월중: -178억 원 → +1.6조 원)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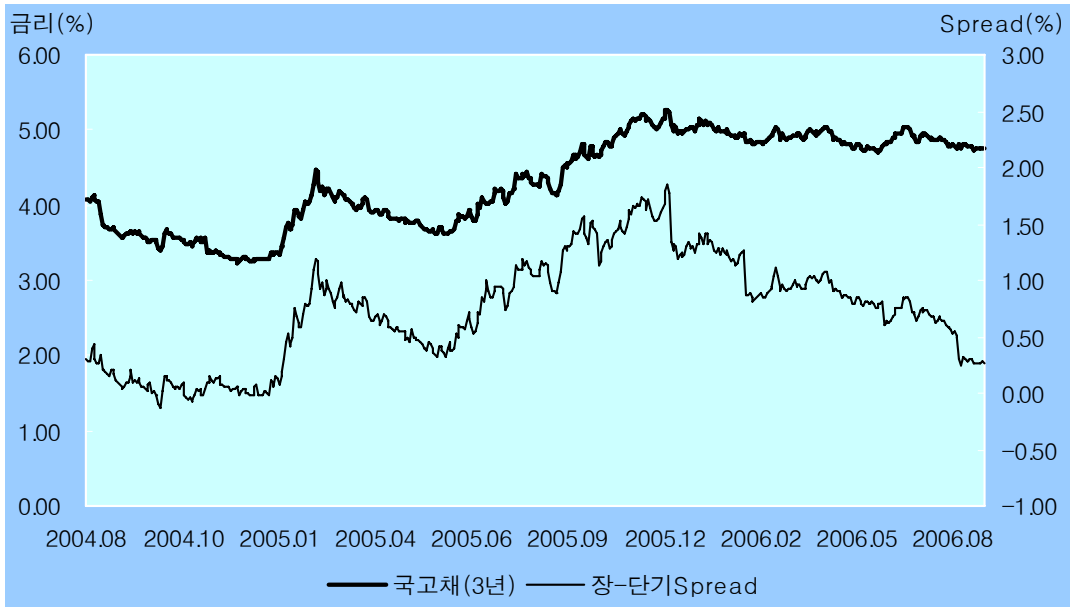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월말잔액		전월비
		8월	6월	7월	8월	2006년		
						7월	8월	
가계대출 ¹⁾	4.5	4.3	2.5	2.7	324.9	327.6	0.83	
주택담보대출 ²⁾	2.6	2.2	2.3	1.3	203.3	204.3	0.4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9	2.2	0.0	1.6	120.1	121.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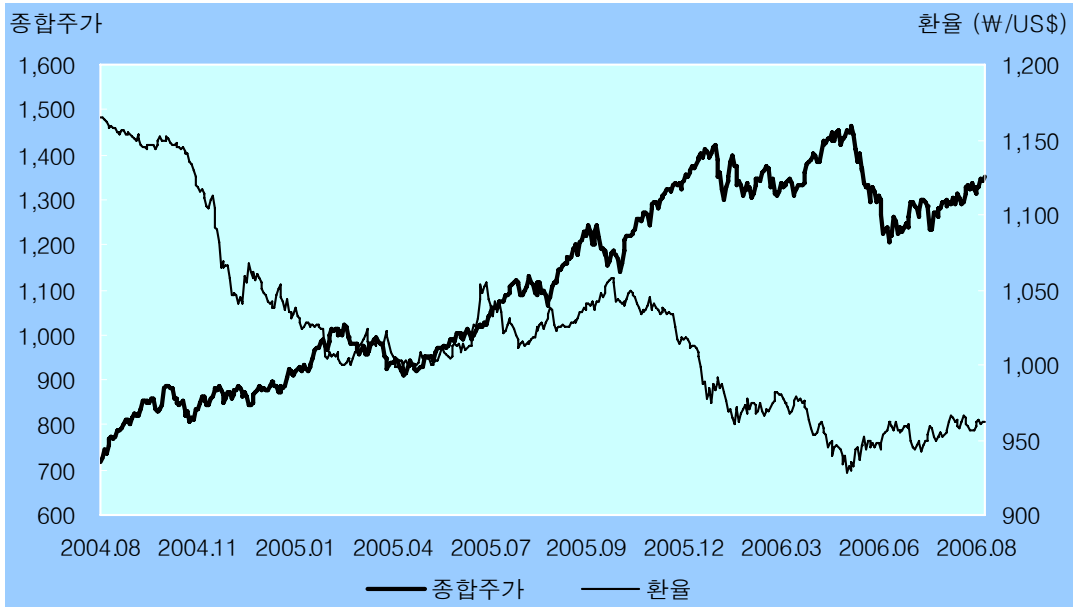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 2006년 8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7월 대비 2.1%(80개) 증가한 3,904개임
- 업종별로 지난 7월 대비 제조업(30.6%),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1.9%)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5.2%)은 감소함

■ 서울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 2006년 8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7월 대비 3.9%(56개) 증가한 1,510개로 전국 대비 비중은 지난 7월(38.0%)과 비슷한 수준(38.7%)임
- 업종별로 서비스업(6.6%)은 지난 7월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10.1%), 제조업(-5.7%)은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 2006년 8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253개로 지난 7월 대비 6.6% 증가함
- 운수업(-5.5%)을 제외한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고,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7월(80.8%) 보다 소폭 증가한 83.0%로 나타남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132개로 지난 7월 대비 5.7% 감소하고, 건설 및 설비업도 10.1% 감소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8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전국	3,910	4,020	4,201	3,824	3,904	80	(-6)	2.1	(-0.2)
서울	1,686	1,655	1,691	1,454	1,510	56	(-176)	3.9	(-10.4)
서비스업	1,352	1,347	1,319	1,175	1,253	78	(-99)	6.6	(-7.3)
제조업	159	148	246	140	132	-8	(-27)	-5.7	(-17.0)
건설 및 설비업	166	157	126	138	124	-14	(-42)	-10.1	(-25.3)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지난 7월 대비 0.01%p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지난 7월 대비 0.01%p 상승

- 2006년 8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 7월 보다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7월 보다 16개 증가한 227개로 2006년 상반기 월평균(213개)을 넘는 수준임
- 업종별로 건설업(13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4개)과 서비스업(2개)도 소폭 증가함

■ 서울 어음부도율 지난 7월 대비 0.01%p 상승

- 2006년 8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 7월 보다 0.01%p 상승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특이부도 증가, 소규모 건설업체 부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7월 보다 14개 증가한 85개로 전국 부도업체 수의 37.4%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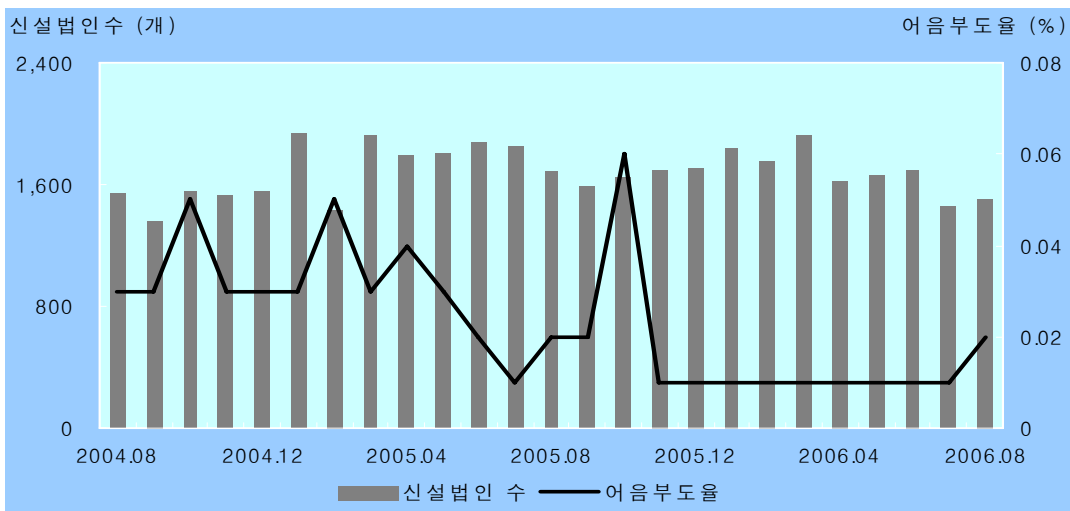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전월비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2	0.03	0.01	(0)	-	-
	부도업체 수	280	189	210	211	227	16	(-53)	7.6	(-18.9)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1	0.02	0.01	(0)	-	-
	부도업체 수	95	59	76	71	85	14	(-10)	19.7	(-10.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2006년 월간 최다 보증 공급

■ 수해기업특례보증 시행 등으로 보증공급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006년 8월중(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기준)은 1,038건(30,848 백만 원)으로 서울시 특례보증 기간을 제외하고 최다 보증공급이 이루어짐
- 지난 7월중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보증공급 규모는 서울시 특례보증이 종료된 이후 보증공급이 집중되었던 지난 6월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난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지원 등에 기인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5.08	2005.04	2006.05	2006.06	2006.07	2006.08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건수	962	664	666	993	662	1,038	76 (376)	7.9 (56.8)
금액	21,588	19,005	20,183	28,352	17,184	30,848	9,260 (13,664)	42.9 (79.5)
건당평균금액	22.4	28.6	30.3	28.6	26.0	29.7	7.3 (3.7)	7.3 (3.7)

주: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종별 도·소매 감소, 제조업 증가

- 2006년 8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을 보면 지난 7월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도·소매업은 지난 7월 대비 4.7%p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4.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보증지원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28	376	219	251	64	1,038
비율	12.3	36.2	21.1	24.2	6.2	100.0
금액	5,397	11,435	4,831	6,681	2,504	30,848
비율	17.5	37.1	15.7	21.6	8.1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업규모별 소상공인 비중 증가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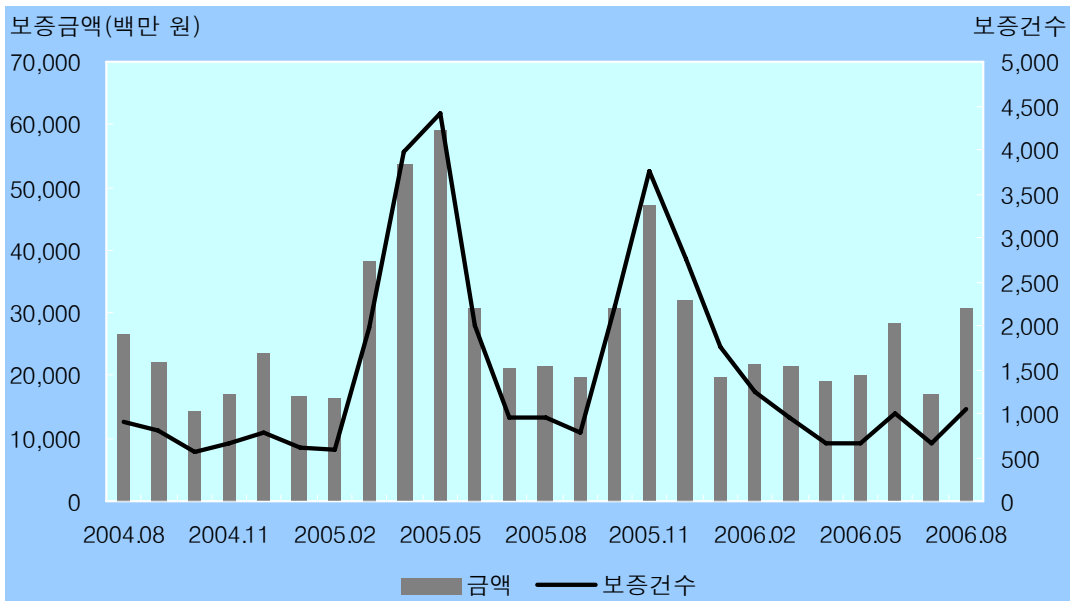
- 2006년 8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멈추고 지난 7월에 비해 4.2%p 감소하였으며, 소기업(1.2%) 및 중기업(3.0%)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06	2006.07	2006.08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899	587	937	350
	비율	90.5	88.7	90.3	1.6
	금액	22,491	14,214	24,220	10,006
	비율	79.3	82.7	78.5	-4.2
소기업	건수	78	41	65	24
	비율	7.9	6.2	6.2	0
	금액	4,248	2,434	4,762	2,328
	비율	15.0	14.2	15.4	1.2
중기업	건수	16	34	36	2
	비율	1.6	5.1	3.5	-1.6
	금액	1,613	536	1,866	1,330
	비율	5.7	3.1	6.1	3.0
합계	건수	993	662	1,038	37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8,352	17,184	30,848	13,66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지난해 8월 대비 각각 8.2%, 17.3% 증가

- 전국 수출 지난해 8월 대비 17.6% 증가
 - 2006년 8월중 전국의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 및 일본과 EU의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8월 대비 17.6% 증가한 27,456백만 불을 기록함
- 전국 수입 지난해 8월 대비 23.0% 증가
 - 2006년 8월중 전국의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가스 등 에너지류의 증가와 기계류·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등 자본재의 증가로 지난해 8월 대비 23.0% 증가한 27,055백만 불을 기록함
- 서울 수출 지난해 8월 대비 8.2% 증가
 - 2006년 8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8월 대비 8.2% 증가한 2,060백만 불을 기록함
 - 성질별로 원자재(15.5%), 자본재(14.7%)가 증가한 반면, 소비재(-9.5%)가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8.6%), 중국(8.2%) 등이 증가하고 일본(-17.7%) 등이 감소함
- 서울 수입 지난해 8월 대비 17.3% 증가
 - 2006년 8월중 서울의 수입은 지난해 8월 대비 17.3% 증가한 5,216백만 불을 기록함
 - 성질별로 석유제품(47.4%) 등의 원자재(22.7%), 의류(15.6%), 자동차(29.4%) 등의 소비재(18.9%)와 항공기 및 부품(65.9%), 반도체(24.0%), 컴퓨터(15.3%) 등의 자본재(13.1%) 모두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 컴퓨터, 의류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중국(25.1%)과 항공기 및 부품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미국(24.8%) 등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전년동월비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3,343	25,593	27,918	27,957	25,875	27,456	4,113	(1,581)	17.6	(6.1)
	수입	22,001	24,330	26,070	25,969	25,458	27,055	5,054	(1,597)	23.0	(6.3)
서울	수출	1,904	2,012	2,098	2,230	2,132	2,060	156	(-72)	8.2	(-3.4)
	수입	4,449	4,683	4,838	4,980	4,789	5,216	767	(427)	17.3	(8.9)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